

안전자산 매력에... 국고채 첫 0%대 '제로금리 시간문제'

경기침체우려 안전자산 채권 선호
10년물 금리, 연 1.286% 8.4bp ↓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세계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증시는 4% 넘게 급락했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 9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안전자산 채권의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곧 '0%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기습적인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개장 직후 연 0.998%에 거래됐다. 이후 1%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4.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038%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0년물 금리는 연 1.286%로 8.4bp 하락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5.5bp

하락, 3.7bp 하락으로 연 1.127%, 연 1.014%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1.334%로 10.0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5bp 하락, 10.7bp 하락으로 연 1.350%, 연 1.349%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가 장중 0%대로 급락한 것은 최근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인 채권으로 투자가 몰린 것이다.

다만 전날 급등했던 채권값은 10일 일제히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서울 채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bp 오른 연 1.08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1.355%로 6.9bp 상승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5.6bp 상승, 1.9bp 상승으로 연 1.183%, 연 1.033%에 마감했다.

◆ 국고채 금리 0%대 '시간문제'... '제로금리' 반영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 0%대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실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채권에 대한 쏠림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기준금리가 0%대가 되는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고채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달 중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0%대로 떨어진다면 채권시장에서 한국이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갈 수 있음에 베풀었다는 의미다.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 컷'을 단행하자 한은도 올해 두 차례(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은이 다음달 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 중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0%대(0.75%)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8~0.9%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 "4월 이전 금리인하 무개"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강화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4월 이전(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금리 등락이 반복되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한국에 더 심각하게 발휘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하면 0%대 기준금리 도달 가능성도 점차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달 중 국고 3년물의 0%대 진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고채 금리 하락 추이는 단기間に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국고 3년물이 1.0%를 밑돌 수는 있다"며 "다만 그러한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숨막히는 저금리... 저축은행 예금금리 또 하락세

국내 79개 저축은행 예금금리 1.91%
올해 2.12%서 시작... 하락세 지속
저축은행 예수금 확보... 금리혜택 줄어



기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연 1.25%)으로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적금(수신) 금리를 또 한번 내리고 있다. 예대율에 여유가 생긴 저축은행들이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수신상품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기준 평균 예금금리는 1.9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꾸준히 떨어지다가 올해 2.12%로 시작한 예금금리가 한달도 안돼 2%아래로 떨어지더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9일 SBI스페셜(복리)정기예금 3년 만기금리를 1.9%에서 1.8%로 내렸는데

해당 상품은 이미 지난달 2.0%에서 인하된 바 있다.

또 OK저축은행은 OK정기예금, OK안심정기예금, 중도해지OK정기예금 등 수신상품 3종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OK정기예금(1년)의 금리는 연 1.9%에서 연 1.8%로, OK안심정기예금(3년)은 연 2.0%에서 연 1.9%로, 중도해지OK정기예금(3년)은 연 1.6%에서 연 1.5%로 각각 변경된다. 이외에도 O

K저축은행은 다음주께 일부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JT저축은행은 JT점포업 저축예금의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8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출시 6개월 만에 기본 금리가 떨어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규제에 앞서 지난해 예수금을 많이 확보한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예금금리 혜택도 줄어드는 셈이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향후에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신상품 금리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내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1.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코로나19 지원 외화소셜본드 5000만弗 발행



국내 첫 코로나19 관련 자금 용도
금융지원, 코로나 확산방지 활용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미화 5000만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 채권'(Covid-19 Impact Alleviation Bond)은 국내 최초로 자금 용도를 코로나19 관

련 피해기업 지원, 확산 방지 활동 지원으로 특정한 소셜 본드다. 만기는 3년, 금리는 USD 3개월 리보(Libor)에 0.60%포인트 가산한 수준이며 HSBC가 주관사로 참여한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신한은행의 코로나19 관련 고객 종합지원대책(자금 지원 규모 5000억원)의 재원으로 편입돼 자금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 활동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화와 외화 그린 본드, 외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에 이어 네 번째 ESG 채권을 발행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SG 채권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조달금액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 등을 포함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단위:개사, 명, 종목, 주

결산연도	회사수	주주수	1인당 보유종목수	1인당 보유주식수
2015	1,975	4,750,027	3.71	12,716
2016	2,070	4,939,465	3.75	13,670
2017	2,147	5,059,013	3.94	14,743
2018	2,216	5,611,764	4.27	15,463
2019	2,302	6,187,021	4.23	15,251
전년대비 증감	3.90%	10.30%	△0.9%	△1.4%

*상기 수치는 개인, 법인, 외국인주주를 포함

주식 보유, 작년보다 10% 증가 619만명

개인주주 98.9%로 가장 많아
주식 최다 보유자 강남 거주 50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자(소유자)가 약 619만명으로 전년보다 58만여명(10.3%)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유자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전자등록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들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 수는 약 944억주로 주주 1인당 평균 약 1만5251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주주는 612만명으로 전체 98.9%로 가장 많았고, 법인주주(0.4%), 외국인 주주(0.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다만 개인주주 1인당 평균 보유주식은 약 7221주로 1법인당 평균 보유주식 131만주, 외국인 72만주보다 낮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주주의 보유 비중(44.9%)이,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주주의 보유 비중(65.1%)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58만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유주식 수는 50대가 148억 주(33.5%)로 가장 많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 371만명(60.6%), 여성 241만명(39.4%)이었다. 소유자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74만명(28.1%)으로 가장 많고 경기(23.7%), 부산(6.3%) 순이었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할 때 강남구 거주 40대 남성이 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주식(11억7000만주)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소유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61만274명)였다. 한국전력(43만2306명), 셀트리온(22만6061명)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라젠(16만8762명), 셀트리온헬스케어(12만2565명), 에이치엘비(11만8192명) 순이었다. 세 종목의 경우 전년보다 주식 소유자는 더 늘어났다. 전체 주식수에서 외국인 소유자 보유주식이 50% 이상인 회사는 40개사로 전년보다 6개사 감소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83.8%), 코스닥시장에서 한국기업평가(80.5%)였다.

한편 전체 91.3%의 소유자는 10종목 미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256만명(41.4%)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